

금남로에 ‘5월의 함성’ ...광주 민심 폭발

‘5·18 망언’ 규탄 범시민궐기대회 1만명 운집 한국당 의원 3명 제명·외국 특별법 제정 촉구

자유한국당의 5·18망언을 규탄하는 범시민궐기대회가 지난 16일 오후 열린 가운데 1만여명의 시민이 운집해 금남로를 가득 메웠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5·18유공자를 ‘괴물’로 표현한 공청회를 개최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극우 논객 지만원씨의 ‘5·18 민주화운동 망언’에 광주 민심이 들끓어 불타 올랐다.

16일 오후 3시 30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

범시민궐기대회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각임에도 많은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에 앉았다.

대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시작으로 개막을 알리자 참가자들은 노래를 끝내고 한목소리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즉각 제명 ▲광주 방문 후 공식 사죄 ▲5·18 외곡·폄훼 처벌 특별법 제정 ▲5·18 진상조사위 출범 협조 등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는 자유한국당이 정계위원회에서 이종명 의원단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 정계유예처분을 내린 결과가 나온 뒤 열린데라 한국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유독

높았다.

학생·장애·청년·여성·노동·종교계 대표들은 “당시 5·18민주화운동 때 광주 시민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민주주의가 지켜졌다”며 “항쟁의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는 모든 행위와 세력들을 반드시 단죄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5·18 부상자회 김후식 회장은 “5·18을 부정하는 자유한국당과 지만원씨는 나라의 모든 법률과 제도를 부정하는 반민주세력이자 반국가 집단이다”며 “5·18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의 그릇된 행위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을 향해 자행됐던 총칼의 학살이 망언의 학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광주시민과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5·18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 민중당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한 목소리로 “5·18 역사왜곡이 더이상 자행



16일 오후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5·18역사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범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5·18 망언을 규탄하며 전투환, 지만원,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금남공원까지 오가는 행진을 끝으로 ‘역사 왜곡 근절 결의’를 모았다.

김 모씨(31)는 “광주시민으로서 5·18에 대해 제대로 알려줘야겠다는 의미에서 아들 두명과 함께 금남로를 찾게 됐다”며 “이미 국가적 행사로 치러지고 있으며, 지난 30여년간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많은 의혹이

씻겨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다. 반드시 이 3명의 의원을 처벌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거짓뉴스를 뿌리고 다니는 지만원씨도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궐기대회에앞서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틴라이트 등 4개 보수단체 회원 250여명이 같은 날 오후 1시 동구 금남로 4가에서 ‘5·18유공

자 명단공개’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회원들은 “명단 공개” 연호와 함께 “빨갱이”, “도라이” 등 과격한 구호를 외치며 금남로 4가역을 출발해 전일빌딩·충장로 1가 입구를 거쳐 웨딩의 거리까지 2km를 행진했다. 지나가는 버스운전사와 집회를 구경하던 시민과 연쟁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종찬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3~9
나주 -5~8
순천 -2~10
광양 -1~9
목포 -2~6
여수 1~8

일출 07:16 일몰 18:17
월출 16:38 월몰 06:05

장성	-5~8	흑산도	3~4
담양	-4~8	구례	-5~10
화순	-4~10	곡성	-5~9
영광	-4~6	완도	0~8
함평	-3~8	강진	-2~8
무안	-3~7	장흥	-3~8
영암	-4~8	해남	-4~7
진도	-2~6	고흥	-4~8
신안	-2~6	보성	-4~8

목포

만조 00:31 13:27
간조 06:09 18:56

여수

만조 08:29 20:37
간조 01:50 14:34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주민 신고로 초등생 납치범 구속

초등학생을 강제로 데려가던 40대가 ‘성범죄자 우편고지’를 통해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진경찰서는 17일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로 A씨(49)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5분께 강진군에서 초등학생 C양(10)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B씨는 성범죄자 우편 고지제도에 따라 집으로 배송된 우편물에서 본 적이 있는 A씨가 어린 여자아이를 끌고 가는 모습을 멀리서 목격했다.

B씨는 즉시 112종합상황실에 납치 의심신고를 했고,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바로 현장에 도착해 신고 5분 만인 오후 4시 10분께 A씨를 검거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새벽 편의점 강도 12시간만에 검거

문구용 가위로 편의점 여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특수강도 혐의로 정모씨(24)를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이날 새벽 3시 30분께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20대 여직원을 위협, 3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로를 추적, 범행 12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44분께 서구 한 PC방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전주에 사는 정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종찬 기자

쌍둥이 ‘허위 출생신고’ 브로커 일당 검거 신원 파악 총책 50대 해외체류 수사 확대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허위 출생신고가 들뜬 난 ‘영암 쌍둥이’ 사건의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영암경찰서는 가짜 부모를 모집해 허위 출생신고를 하게 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임 모씨(47) 등 브로커 3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 등은 2013년 1월 인터넷 광고로 유인한 김 모씨(28·여)에게 허위 출생신고서를 서울의 한 구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들은 병원에서 작성한 증명서가 없더라도 인우보증인 2명을 내세우면

출생신고가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김씨는 ‘고수의 알바’ 광고로 알게 된 임씨에게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쌍둥이 엄마 행세를 했으나 두려운 마음에 돈을 받지 않고 중도에 그만뒀다. 그러나 쌍둥이의 가짜호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지난달 초 영암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쌍둥이가 나오지 않아 소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은 신원이 파악된 총책 김 모씨(50)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

‘선거법 위반’ 지역단체장 희비 엇갈려

강인규·김종식 시장 등 3명 직위 유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 단체장들의 재판결과가 ‘현직 유지단체장’과 ‘당선무효형’ 단체장들로 나뉘면서 희비가 갈리고 있다.

17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과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각각 벌금 9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승욱 강진군수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음성메시지를 통해 투표참여를 독려한 강 시장에 대해 위법성 인식 미약과 당내 경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도 사전선거운동이 선거공정성은 훼손했지만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당선무효형은 피해했다.

이들과 달리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

아 땀고 있는 단체장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운행 함평군수는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도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고법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군수와 김 구청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고광민 기자

동해와 남해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퍼핀스베이리조트

퍼핀스베이리조트는 완도를 시작으로 가평, 낙산, 영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전국망으로 확대 공사중입니다.

전국 4개 직영점 확장 오픈기념!!!

4년간 990,000원 에 누리는 퍼핀스베이 리조트 회원권

퍼핀스베이 리조트는 완도를 시작으로 가평, 낙산, 영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전국망으로 확대 공사중입니다.

이용 가능 골프장
- 전라도권 23여곳, 경상도권 40여곳, 제주도권 20여곳

“추가 300분 고객에게 더 드립니다.”

- 30박 무료 숙박권
- 골프 제휴사 (그린피 5%-20% 2년간 할인)
- 무료 숙박권 5박
- 수상레저 상품권 (1만원권) 14매 증정
- 바베큐 상품권 (2만원권) 10매 증정
- 카파상품권 (5천원권) 10매 증정
- 전국 퍼핀스베이 리조트 직영점 회원가 이용 가능(4년간)

택 1

가평직영점 낙산직영점 영덕직영점 완도직영점 바베큐 수상레저 골프

www.puffinsbayresort.com
퍼핀스베이리조트

퍼핀스베이리조트만의 특별함

전국 각 지역의 퍼핀스베이리조트는 산과 함께, 강과 함께, 바다와 함께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별장입니다.

퍼핀스베이리조트 멤버

입회금액 : 990,000원 (VAT포함)
멤버기간 : 4년
자 격 : 본인 및 직계가족
멤버카드 : 기명 1매

입금전용계좌

(주)모두누림
농협 351-1043-5911-23

- 금일 현금 결제시 영화 CGV 무료권 2매 증정
- 본 상품은 확장기념 홍보이벤트 상품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무기명 및 법인 멤버는 별도 상담합니다.

본 광고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입회가입문의 02)535-1910 상담문의 시간은 평일 오전 10~17시 까지입니다.